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은/는’과 ‘이/가’ 인식 연구

오아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오아림, 2021) 중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위 논문에서와는 결과 분석의 틀을 달리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은/는’과 ‘이/가’의 의미와 실현 맥락
- IV. 연구 방법
- V. ‘은/는’과 ‘이/가’ 실현 맥락별 인식
- VI. 결론 및 제언

I. 서론

한국어의 주어는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어서 형성되는 것이 기본이나 보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이다. 주어명사구와 결합하는 ‘은/는’과 ‘이/가’의 적절성은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1) 가. 우리 반에서 수미가/*는 제일 크다.

(2) 가. 철수가 어디에 갔어요?

나. a. ?철수가 학교에 갔어요.

b. 철수는 학교에 갔어요.

(1)에서와 같이 문장 내에 ‘가장’, ‘제일’ 등의 부사어가 함께 쓰일 경우, 주어는 ‘이/가’와 결합하여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은/는’과 함께 쓰이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 (2)와 같이 질문과 답변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 답변의 주어는 (2나b)와 같이 ‘은/는’과 함께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듯 ‘은/는’과 ‘이/가’의 실현은 문장과 담화 층위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습득하기 까다로운 항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어 교재에서 ‘은/는’과 ‘이/가’는 초급 초반부에 목표 항목으로 제시되는데, 대부분 두 조사를 주제 표지(topic marker)와 주어 표지(subject marker)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다양한 실현 맥락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교실에서의 학습을 통해 ‘은/는’과 ‘이/가’의 의미와 실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중·고급 수준에 이르러서도 학습자들이 ‘은/는’과 ‘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석주, 2002; 김정숙·남기춘, 2002; 김호정·강남옥, 2010; 오아림·박선희, 2016; 이은경, 1999; 한송화, 2016; Sholeva, 2018 등). 특히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이 ‘은/는’과 ‘이/가’의 다양한 실현 맥락에서 적절한 조사를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학습자들의 ‘은/는’과 ‘이/가’의 인식 양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선행 연구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은/는’과 ‘이/가’의 습득 연구는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오류 분석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고석주, 2002; 김정숙·남기춘, 2002; 김지은, 2009; 김현지, 2010; 김호정·강남옥, 2010; 박종호, 2009; 원미진, 2016; 이은경, 1999; 한송화, 2016 등), 이들 연구에서 두 조사의 실현 맥락은 고려되지 않았다. 중간언어적 관점에서 ‘은/는’과 ‘이/가’의 필수적 실현 맥락을 나누어 습득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김원경(1993), 오아림·박선희(2016), 정해권(2011), Sholeva(2018) 등 그 수가 많지 않다. 김

원경(1993)은 ‘은/는’과 ‘이/가’의 기능을 통사, 의미, 화용 층위로 분류하고, 각 층위의 기능들을 세부 분류하여 각 기능의 습득 양상을 살펴본 후 문맥을 통한 유추 가능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등을 근거로 기능별 난이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아림·박선희(2016)는 ‘은/는’과 ‘이/가’가 실현되는 언어적 맥락을 하위분류한 후,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맥락별 습득 양상을 확인하였다. 다지선다형 선택 과제를 사용하여 생산을 살펴본 결과, 맥락에 따라 습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권(2011)은 ‘이/가’의 기능은 ‘중립’과 ‘초점’으로,¹⁾ ‘은/는’의 기능은 주제와 대조로 분류하고, 두 조사의 전형적 의미를 각각 ‘초점’과 ‘주제’로 본 후 전형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보다 먼저 습득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실험 결과, ‘이/가’의 경우 ‘중립’이 ‘초점’보다 빨리 습득되었으며, ‘은/는’은 예측과 같이 주제, 대조 순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oleva(2018) 또한 ‘은/는’과 ‘이/가’의 실현 맥락을 하위분류한 후, 다지선다형 선택 과제를 사용하여 불가리아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맥락별 습득 양상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은/는’과 ‘이/가’ 모두에서 중·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이/가’의 경우 학습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은/는’과 ‘이/가’의 의미와 실현 맥락을 분류하고 그 습득 순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은/는’과 ‘이/가’의 실현 맥락을 포괄적으로 살펴지 못했으며 모두 생산 측면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모어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모어와 제2언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morphological congruency)이 제2언어의 형태론적 습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²⁾

- 1) ‘이/가’의 경우 ‘초점’의 의미를 가질 경우 선행 명사에 프로미넌스(prominence)가 놓이고 ‘중립’ 기능에서는 선행 명사 외의 부분에 프로미넌스가 놓이고 ‘이/가’가 생략 가능하다고 보았다.
- 2) 두 언어가 하나의 의미를 문법화하고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일치하면 형태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언어에는 문법적 형태가 있으나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일본어의 경우 ‘은/는’과 ‘이/가’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は’와 ‘が’가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대응하는 문법 항목을 포착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일본인 학습자들보다 ‘은/는’과 ‘이/가’의 습득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은/는’과 ‘이/가’가 실현되는 언어적 맥락을 확인하고, ‘은/는’과 ‘이/가’의 실현 맥락별로 일본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은/는’과 ‘이/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모어 변인에 따른 습득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 ‘은/는’과 ‘이/가’의 의미와 실현 맥락

1. ‘은/는’의 의미와 실현 맥락

조사 ‘은/는’은 보조사 또는 특수조사로 문법 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며 특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³⁾ ‘은/는’은 체언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장성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연결 가능하나 문두의 주어 자리에 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3) 가.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나. 제가 김철수라고 합니다.

다. *저를 김철수라고 합니다.

라. *저에게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 않으면 형태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Jiang, et al., 2011: 942).

- 3) 최현배(1959, 1999), 한국어학회(1999: 207-226) 등 ‘은/는’을 주격조사로 분류한 학자들도 있으나, 현대 국어학에서는 ‘은/는’을 보조사로 보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이다.

(3가)의 ‘저’와 결합한 ‘은/는’은 문두에 자리하며 ‘이/가’로는 대체 가능한 반면 ‘을/를’이나 ‘에게’ 등의 조사로는 바꿔 쓸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주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현배(1959, 1999)가 ‘이/가’와 함께 ‘은/는’을 임자 자리로, 즉 주격조사의 구실도 한다고 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현대 국어학에서는 문두에 나타나는 조사 ‘은/는’을 ‘주제(topic) 제시’의 기능을 하는 보조사로 보는 것이 주류 입장이다(남기심, 1972; 임홍빈, 1972, 1998; Yang, 1972; 신창순, 1975; 채완, 1976; 홍사만, 2002 등). 주어명사구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을 때 ‘은/는’과 결합하여 주제로 해석된다.

첫째, 화·청자 간에 서로 이해가 된 주제일 때 ‘은/는’이 첨가되면 주제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적 지식으로 청자가 이미 그 요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어야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가. 철수는 내 제자다. (남기심, 1972: 128)

나. 두 사람은 합격하였다. (채완, 1976: 98)

(4가)과 (4나)의 ‘철수’와 ‘두 사람’은 전술되었거나 화·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이거나 적어도 청자가 ‘철수’와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 화자가 가정할 때만 사용 가능한 문장이다.

다음으로 고유한 존재(해, 달, 지구 등), 총칭적(generic) 유개념으로 쓰이는 일반 명사가 주어로 나타나고 유일 존재 또는 류(類)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 ‘은/는’과 결합하여 주제가 된다.

(5) 가.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나. 해는 동쪽에서 뜬다. (남기심, 1972: 128)

(5)의 ‘고래’와 ‘해’는 주제를 나타내고 뒤에 따르는 말은 그 주제에 대

한 설명이다. (5가)의 ‘고래’는 특정한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라는 류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총칭적인 것(generic)이 되며, (5나)의 ‘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물이라는 면에서 유칭적인 것이다. 또한 한정성을 지닌 대상으로 고유명사, 1, 2인칭 대명사, ‘이, 그, 저’가 연결된 명사는 보통 ‘은/는’과 결합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⁴⁾

반면, 의문사, 부정사, 화자가 알지 못하는 대상, 일시적 존재나 상태 표현과 같이 그 대상이 한정성을 지니지 못할 경우 주제가 될 수 없다.

(6) 가. 누가/*누구는 이 케이크를 사 왔니?

나. 어떤 여자가/*는 방에 들어왔다.

(6가)와 (6나)를 보면, 의문사 ‘누구’와 부정사 ‘어떤’과 함께 쓰인 명사는 ‘은/는’과 결합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표시’와 함께 ‘은/는’의 의미로 논의되어 온 것은 ‘대조’이다(남기심, 1972; 신창순, 1975; 임홍빈, 1972, 1998; 채완, 1976; 홍사만, 2002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두의 ‘은/는’이 주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명사구가 총칭명사나 유칭명사 또는 전술명사여야 하지만, 대조는 이와 같은 제약이 없다(남기심, 1972; 129). ‘대조’의 의미는 자매항을 지니게 되는데, 문맥에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8) 가. 존, 빌, 짐이 시험을 쳤다.

나. 존은 합격했으나 빌과 짐은 합격하지 않았다.

나. 존은 합격했다.

(‘그러나 빌과 짐은 합격하지 않았다.’ 또는 ‘빌과 짐이 합격했는지는 모른다’)

(홍사만, 2002: 181)

4) 1, 2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를 지정하므로 언제나 한정적이며 ‘이, 그, 저’ 등 지시사와 함께 쓰인 주어명사구도 이에 해당한다.

자매항이 문중에 명시되는 경우에는 (8나)와 같이 대등 접속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자매항이 청자에게 암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8나')와 같이 '부정'이나 '불확실'을 함의하는 문장의 성격을 띠게 된다(홍사만, 2002: 177).

'은/는'의 의미와 실현 맥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는'은 보조사로 '주제'와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은/는'이 주제의 기능을 지닐 때, 주어명사구는 총칭적인 것을 나타내거나 앞서 언급된 대상 즉 구정보가 되며, 주어명사구가 비한정적 대상일 경우 '은/는'이 결합할 수 없다. 요약한 바를 바탕으로 '은/는'의 실현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은/는'의 실현 맥락

가. 주제(총칭성) 나. 주제(구정보) 다. 대조

2. '이/가'의 의미와 실현 맥락

많은 연구들에서 '이/가'가 격조사의 기능뿐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이/가'가 배타성을 지닌다는 입장(김선희, 1983; 남기심, 1972, 1996; 임홍빈, 1972, 1998)과 여럿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는 '선택 지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고석주, 2001; 박선희, 2016; 신창순, 1975)이 있다.

남기심(1972, 1996)과 임홍빈(1972, 1998)은 각각 '이/가'에 '배타적 지칭'과 '배타적 대립'의 기능이 있다고 하여 '이/가'의 의미를 배타성으로 보았다.

(10) 가. 철수가 학생입니다.

나. 철수는 학생입니다.

(10나)와 비교해 보면 ‘이/가’가 쓰인 (10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철수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이/가’에 ‘배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고석주(2001)는 ‘이/가’가 쓰인 문장에서 ‘배타성’이 드러나는 것은 ‘이/가’가 아니라 문장 내의 다른 단어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11) 가. 철수가 먼저 학교에 갔다.

나.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고석주, 2001: 130)

(11가)와 (11나)는 판단 대상이 주어인가 장소인가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11가)의 경우 ‘학교에 먼저 간 것은 철수이다’와 ‘철수가 먼저 간 곳은 학교이다’로, (11나)는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이다’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부산이다’로 해석 가능한데, 고석주(2001)은 이를 ‘배타성’이 ‘이/가’가 아니라 ‘먼저’, ‘가장’과 같은 초점사(focalizer, focus particle)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타성’과 조사 ‘이/가’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이/가’의 의미가 ‘배타성’이 아니라 ‘선택 지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2) 가. 철수는 먼저 학교에 갔다.

나.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고석주, 2001: 130)

그러나 (12가)와 (12나)와 같이 주어명사구가 ‘은/는’과 결합한 경우 초점사가 나타나도 주어명사구가 배타성을 띠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주어가 배타성을 띠는 맥락에서는 주어에 ‘이/가’만이 결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가’가 실현되는 맥락들로는 배타성 외에도 정보적 초점, 특정성(김선희, 1983), 선택적 초점, 수정적 초점(Lee, 2010), 확인의문문(박선희, 2016),

수사의문문(고석주, 2002 ㄱ) 등이 있다.

정보적 초점은 담화·화용상 초점을 받는 성분으로 의문사와 그에 대한 응답이 그 예가 된다(김선희, 1983: 37).

(13) 가: 누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나: 소라가/*는 사왔어요.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개체를 지정할 때 주어에는 ‘이/가’가 나타난다(김선희, 1983: 33).

(14) 가: 저기 저것이 뭐니?

나: 어머니, 사람이/*은 죽네.

(김선희, 1983: 34)

이렇듯 특정 사태를 지정할 경우, 그 문장의 시상에 시간적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동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김선희, 1983: 34).⁵⁾

선택적 초점은 다른 항목들과 대조를 통한 초점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문의 응답이 되며, 수정적 초점은 이전 발화에서 언급된 주어가 다른 대안으로 대체되는 초점이다(Lee, 2010: 315; 박선희, 2016: 97 재인용).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5) 가: 이 쿠키 하나가 만들었어요? 두나가 만들었어요?

나: 하나가/*는 만들었어요.

(16) 가: 이거 민호가 사 왔어요?

5) 임흥빈(1972, 1998)은 ‘이/가’ 구문을 비정언문으로 보고, 비정언문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를 합동의 관계로 보았다. 언어 진술의 경험적 상황이 수시로 변한다는 면에서 볼 때 비정언문의 주사와 빈사 사이의 ‘합동’ 관계는 순간적으로 성립하며, 따라서 비정언문은 현장중언적 특징을 지니며, ‘직접적, 구체적, 감각적, 특수적, 순간적, 주관적, 현실적’이라는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오아름·박선희, 2016: 225).

나: 아니요, 준호가/*는 사 왔어요.

확인신문문은 의외적 사실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드러내며(박선희, 2016: 98), 수사의신문문은 선택지정된 대상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고석주, 2002 7: 231) 반어적으로 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뜻을 담고 있다.

(17) 가: 저기 미라가 왔네요

나: 어머, 미라가/*는 왔어요?

(18) 가: 운동화를 사 주면 유미가 운동을 할까요?

나: 에이, 그런다고 유미가/*는 운동을 하겠어요?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한정적 지시체가 주어로 오게 되면 ‘은/는’은 결합 불가능하며 ‘이/가’만이 나타날 수 있다.

(19) 어떤 사람이/*은 밤새 노래를 불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가’의 실현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이/가’의 실현 맥락

가. 정보적 초점	나. 선택적 초점
다. 수정적 초점	라. 배타성
마. 특정성	사. 확인신문문
아. 수사의신문문	자. 비한정적 주어

IV.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은/는’과 ‘이/가’의 언어맥락적 조건별 인식은 모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는 단일주어문의 ‘은/는’과 ‘이/가’가 실현되는 언어적 맥락을 나누고, 맥락별로 모어에 따라 그 인식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고급 학습자, 일본인 고급 학습자 각 30명으로 모두 20-30대 여성이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떠난 지 3개월 이내인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6급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의 5급 이상 이수자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제30-34회의 중·고급 어휘와 문법 영역의 문항 20개로 구성된 숙달도 검사를 통해 문법과 어휘 수준이 고급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숙달도 평균은 33.93과 33.07, 표준편차는 4.863과 4.331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 숙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19$, $p<.05$).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수용성 판단 과제의 일종인 리커트 척도법이었으며, 앞서 검토한 ‘은/는’과 ‘이/가’의 실현 맥락별로 ‘은/는’과 ‘이/가’ 문항이 제시되어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언어적 맥락 11개 x 조사 제시 2개). 피험자들은 담화 상황이 제시된 후 남자-여자 순으로 발화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여자의 마지막 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1점에서 4점으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⁶⁾

<표 1> 실험 문항 구성

조사	언어적 맥락	‘은/는’ 제시	‘이/가’ 제시
‘은/는’	구정보	(상황: 두 사람에게는 ‘선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자가 ‘선아’의 방에서 나옵니다.) 남: 선아 지금 뭐 해요? 여: 선아는 친구하고 전화해요.	(상황: 두 사람에게는 ‘서우’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자가 ‘서우’의 방에서 나옵니다.) 남: 서우 지금 뭐 해요? 여: 서우가 책을 읽어요.
	총칭성	(상황: 남자가 여자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 줍니다.) 남: 우리 진이에요. 나 닮아서 좀 못생겼죠? 여: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예쁜데. 애들은 누구나 다 예뻐요.	(상황: 남자가 여자에게 아들의 사진을 보여 줍니다.) 남: 우리 민수예요. 나 닮아서 좀 못생겼죠? 여: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귀여운데. 애들이 누구나 다 귀여워요.
	대조	(상황: 남자가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남: 애들 다 집에 있어요? 여: 미나는 있어요.	(상황: 남자가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남: 애들 다 저녁 먹었어요? 여: 미나가 먹었어요.

6) 문항의 적절성은 한국어교육 전공자 3명을 대상으로 노밍테스트를 거쳐 점검 받았다.

'이/가'	정보적 초점	(상황: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못 보던 케이크가 있습니다.) 남: 누가 케이크를 사 왔어요? 여: 아리 는 사 왔어요.	(상황: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못 보던 꽃이 있습니다.) 남: 누가 꽃을 사 왔어요? 여: 유라 가 사 왔어요.
	선택적 초점	(상황: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못 보던 과자가 있습니다.) 남: 과자 맛있겠다. 현지가 만들었어요? 윤호가 만들었어요? 여: 현지 는 만들었어요.	(상황: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못 보던 쿠키가 있습니다.) 남: 쿠키 맛있겠다. 하나가 만들었어요? 두나가 만들었어요? 여: 하나 가 만들었어요.
	수정적 초점	(상황: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남: 어, 집이 깨끗해졌네. 미주가 청소를 했어요? 여: 아니요, 주호 는 했어요.	(상황: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싱크대가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남: 어, 싱크대가 깨끗해졌네. 주미가 설거지를 했어요? 여: 아니요, 민호 가 했어요.
	배타성	(상황: 두 사람은 지금 '공유'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남: 공유, 정말 멋있다. 여: 응, 요즘 배우들 중에 공유 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상황: 두 사람은 지금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남: 수지 정말 예쁘다. 여: 응, 요즘 배우들 중에 수지 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특정성	(상황: 두 사람이 교실에 들어오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남: 이게 무슨 냄새지? 여: 미라 는 햄버거를 먹고 있네.	(상황: 두 사람이 교실에 들어오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남: 이게 무슨 소리지? 여: 미라 가 유튜브를 보고 있네.
	확인 의문문	(상황: 오늘은 학교 축제날이고 저녁에 공연이 있습니다.) 남: 그 얘기 들었어요? 오늘 저녁 공연에 아이유가 온대요. 여: 어? 아이유 는 와요?	(상황: 오늘은 학교 축제날이고 저녁에 공연이 있습니다.) 남: 그 얘기 들었어요? 오늘 저녁 공연에 BTS가 온대요. 여: 어? BTS 가 와요?
	수사 의문문	(상황: 두 사람에게 '주희'라는 딸이 있는데 주희가 운동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남: 운동화를 새로 사 주면 주희가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여: 에이, 그러다고 주희 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어요?	(상황: 두 사람에게 '지희'라는 딸이 있는데 지희가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남: 책상을 새로 사 주면 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여: 에이, 그러다고 지희 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비한정적 주어	(상황: 여자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남: 괜찮아요?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잠 못 잤어요? 여: 네, 글썄, 어제 어떤 애 는 밤새 울었어요.	(상황: 여자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남: 괜찮아요?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잠 못 잤어요? 여: 네, 글썄, 어제 어떤 사람 이 밤새 피아노를 쳤어요.

모든 문항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시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⁷⁾ 문항 제시의 예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항 제시의 예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언어맥락적 조건이 다른 문장들에서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인 ‘은/는’과 ‘이/가’에 대한 수용성 점수이다. 언어맥락적 조건별로 모어 변인에 따른 세 집단의 ‘은/는’과 ‘이/가’의 수용성 점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검정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였다.⁸⁾

7) 실험 자극은 비욘드(vyond)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설문지 제작과 자료 수집은 서베이케이크(surveycake)를 통해 이루어졌다. 두 웹사이트는 유료로 사용하였으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vyond.com/>, <https://www.surveycak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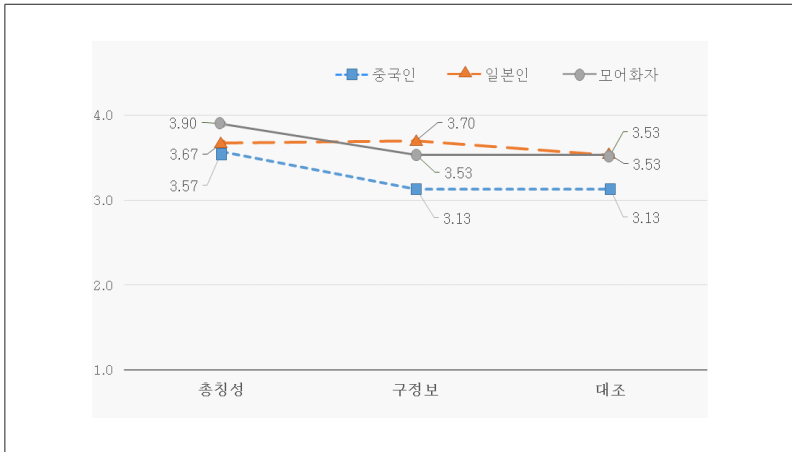
8) 일원분산분석은 두 개 이상의 표본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 방법으로, 집단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각 집단 내의 분산과 집단 간의 분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원리에서 평균

V. ‘은/는’과 ‘이/가’ 실현 맥락별 인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은/는’과 ‘이/가’의 실현 맥락별로 학습자의 모어 변인에 따라 그 습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1. ‘은/는’ 실현 맥락별 인식

‘은/는’이 실현되어야 하는 맥락에서 맥락별로 ‘은/는’에 대한 수용성 점수 평균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은/는’의 수용성 점수 평균

<그림 2>를 보면 ‘총칭성’ 맥락에서는 세 집단 모두 ‘은/는’에 3.5점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⁹⁾ 반면, ‘구정보’와 ‘대조’ 맥락

대신 분산을 분석하는 방식이다(이종성·강계남·김양분·강상진·이은실, 2000: 364).

9) 수용성 점수 평균이 3.5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3점과

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수용성 점수 평균은 3.5점 이상인 반면 중국인 학습자의 수용성 점수 평균은 3점에 근접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맥락에서 세 집단 간 수용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은/는’ 실현 맥락의 ‘은/는’ 수용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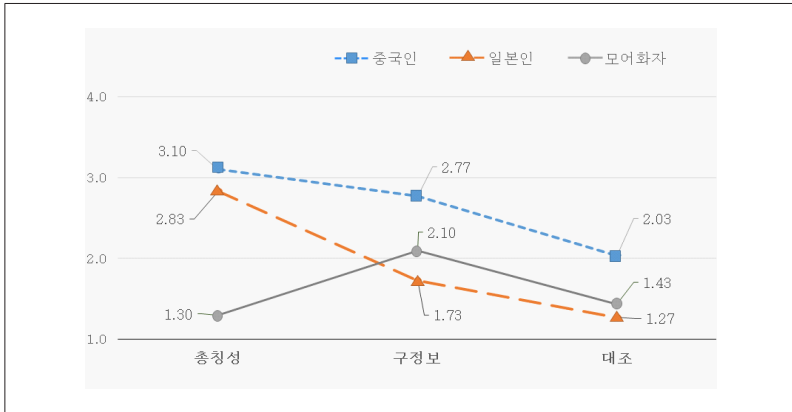
실현 맥락	중국인 (N=30)		일본인 (N=30)		한국어 모어 화자 (N=30)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구정보	3.13	0.973	3.70	0.596	3.77	0.504	7.004*	.002
대조	3.13	0.973	3.53	0.819	3.53	0.629	2.384	.098

*p<.05

분석 결과 ‘은/는’의 실현 맥락 중 ‘구정보’ 맥락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차이가 어느 집단 사이에 나타났는지를 사후 검정(Scheffé test)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은/는’ 실현 맥락에서 ‘이/가’에 대한 수용성 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4점을 선택하여, 문장을 ‘자연스럽다’고 평정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교차분석을 통해 평균이 3.5점 이상인 ‘충청성’ 맥락의 응답을 확인한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90% 이상의 피험자들이 3점 또는 4점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충청성’ 맥락의 수용성 점수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3〉 ‘이/가’의 수용성 점수 평균

총칭성 맥락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이/가’ 문항에, 1점에 근접하는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는 3점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구정보’ 맥락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일본인 학습자 순으로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대조’ 맥락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1.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2점 이상의 수용성 점수를 나타냈다.

‘은/는’ 실현 맥락에서 ‘이/가’에 대한 수용성 점수 기술 통계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은/는’ 실현 맥락의 ‘이/가’ 수용성 점수

실험 맥락	중국인 (N=30)		일본인 (N=30)		한국어 모어 화자 (N=30)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총칭성	3.10	1.213	2.83	1.262	1.30	.466	25.882*	.000
구정보	2.77	1.194	1.73	.828	2.10	.759	9.191*	.000
대조	2.03	.964	1.27	.583	1.43	.568	9.18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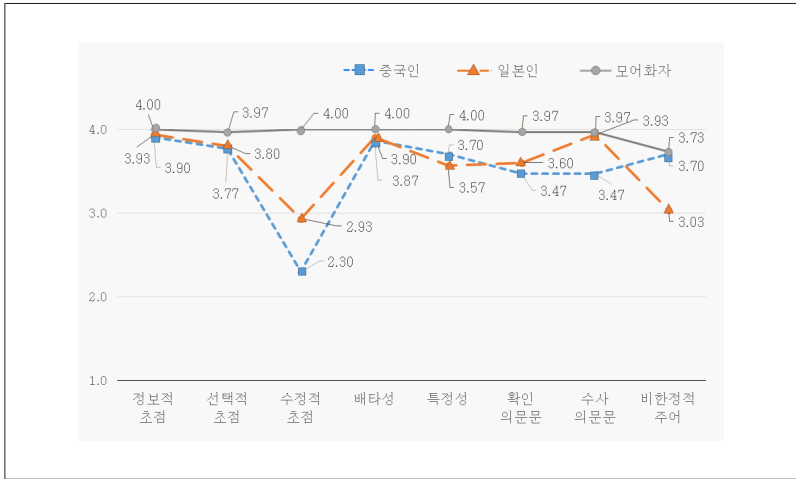
* $p < .05$

분석 결과 ‘은/는’의 모든 실현 맥락에서 모어 변인에 따라 ‘이/가’의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총칭성 맥락에서는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정보와 대조 맥락에서 중국인 학습자만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어떤 문법 항목을 습득했다면 그 항목의 실현 맥락에서 정답에는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오답에는 낮은 수용성을 보여 각 조사의 실현 맥락을 변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은/는’의 모든 실현 맥락에서 ‘이/가’에 대해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도 ‘은/는’의 실현 맥락을 변별하지 못한 반면, 일본인 학습자는 ‘총칭성’ 맥락에서만 ‘이/가’에 대한 수용성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높았다. 이는 모어 변인에 따라 ‘이/가’의 실현 맥락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인 학습자가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에 근접하는 인식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일본인 학습자가 ‘총칭성’ 맥락에서 ‘은/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보인 이유는 한국어 교재에서 ‘총칭성’이 ‘이/가’의 주요 맥락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이며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낸다는 특성 때문에 구어 대화에서도 학습자들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이/가’ 실현 맥락별 인식

‘이/가’ 실현 맥락에서 맥락별로 ‘이/가’에 대한 수용성 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이/가’의 수용성 점수 평균

〈그림 4〉를 보면 ‘정보적 초점’, ‘선택적 초점’, ‘배타성’, ‘특정성’ 맥락에서는 세 집단 모두 3.5점 이상의 높은 수용성 점수를 보였다.¹⁰⁾ 반면 ‘확인 의 문문’과 ‘수사의 문문’ 맥락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3.5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보였으며 ‘수정적 초점’ 맥락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3점 이하,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의 수용성 점수가 3점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에 ‘수정적 초점’과 ‘확인 의 문문’, ‘수사의 문문’,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 ‘이/가’에 대한 수용성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기술 통계와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10) 세 집단이 수용성 점수 평균이 3.5점 이상인 맥락에서, 세 집단 모두 ‘이/가’ 문항을 3점 이상으로 평정한 피험자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므로 통계적 검정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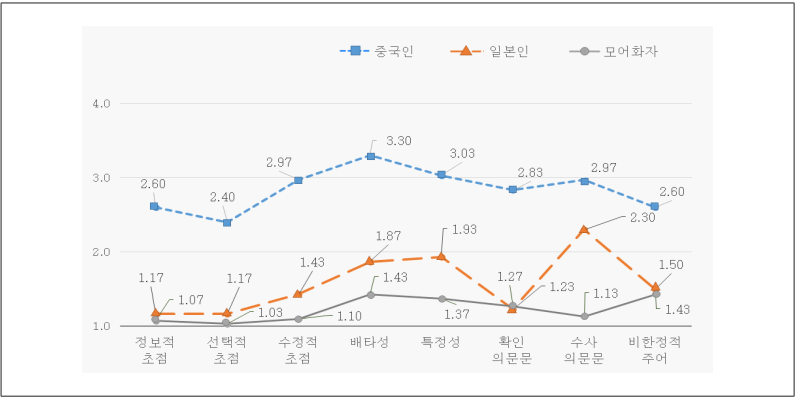
〈표 4〉 ‘이/가’ 실현 맥락의 ‘이/가’ 수용성 점수

실현 맥락	중국인 (N=30)		일본인 (N=30)		한국어 모어 화자 (N=30)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정적 초점	2.30	1.418	2.93	1.388	4.00	.000	16.875*	.000
확인 의문문	3.47	.860	3.60	.894	3.97	.183	3.834*	.025
수사의문문	3.47	.819	3.93	.254	3.97	.183	9.146*	.000
비한정적 주어	3.70	.535	3.03	1.129	3.73	.450	7.959*	.001

* $p < .05$

분석 결과 ‘수정적 초점’, ‘확인 의문문’, ‘수사의문문’,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 모어 변인에 따라 ‘이/가’의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수정적 초점’ 맥락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확인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는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이/가’ 실현 맥락에서 ‘은/는’의 수용성 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은/는’의 수용성 점수 평균

‘은/는’에 대한 수용성 점수는 맥락별로 모어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5>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수용성 점수가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모든 ‘이/가’ 실현 맥락에서 ‘은/는’ 문항에 대해 1.5점 이하의 낮은 수용성 점수를 보였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배타성’과 ‘특정성’, ‘수사의문문’ 맥락에서 각각 1.87, 1.93, 2.30의 수용성 점수를 보였으며, 그 외의 맥락에서는 1.5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2.5점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하는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이/가’ 실현 맥락에서 맥락별로 ‘은/는’에 대한 수용성 점수 기술 통계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이/가’ 실현 맥락의 ‘은/는’ 수용성 점수

실현 맥락	중국인 (N=30)		일본인 (N=30)		한국어 모어 화자 (N=30)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정보적 초점	2.60	1.303	1.17	.461	1.07	.254	101.389*	.000
선택적 초점	2.40	1.163	1.17	.379	1.03	.183	78.400*	.000
수정적 초점	2.97	1.273	1.43	.817	1.10	.305	128.500*	.000
배타성	3.30	1.149	1.87	1.074	1.43	.626	140.400*	.000
특정성	3.03	1.159	3.03	1.159	1.37	.556	126.889*	.000
확인문의문	2.83	1.262	1.23	.568	1.27	.640	117.556*	.000
수사의문문	2.97	1.189	2.30	1.149	1.13	.346	134.400*	.000
비한정적 주어	2.60	1.248	1.50	1.042	1.43	.858	123.822*	.000

* $p < .05$

분석 결과 ‘이/가’의 모든 실현 맥락에서 모어 변인에 따라 ‘은/는’의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수사의문문’

맥락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맥락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가’ 실현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인식 결과를 요약하면, 중국인 학습자는 ‘이/가’의 모든 실현 맥락에서 ‘이/가’가 실현되어야 함을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반면, 일본인 학습자는 ‘수정적 초점’, ‘수사의문문’,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의 인식만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수정적 초점’과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는 ‘이/가’에 대한 인식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사의문문’에서는 ‘은/는’에 대한 수용성이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형태적 유사성이 있음에도, 일본인 학습자들이 이 맥락들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첫째, ‘수사의문문’의 경우 선택·지정된 대상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반어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생활의 구어 대화에서 많이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이 맥락에서 ‘이/가’와 ‘은/는’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변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수정적 초점’과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 정답인 ‘이/가’에 대한 수용성이 낮았던 이유는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고급 학습자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어의 경우 비한정적 지시체가 주어가 될 경우 ‘어떤+주어 명사구’ 대신 부정사 ‘누군가’에 해당하는 ‘誰か’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ある人が一晩中ピアノを弾きました(어떤 사람이 밤새 피아노를 쳤다)’ 보다는 ‘誰かが一晩中ピアノを弾きました(누군가가 밤새 피아노를 쳤어요)’가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으며, 일본어의 경우 주어 명사구를 특정하여 질문하는 ‘수정적 초점’ 맥락이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적 초점’ 맥락의 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황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보고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은/는’과 ‘이/가’는 주어명사구와 매우 빈번히 결합하는 조사로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 초반에 목표 항목으로 교수되나 학습자들은 고급 수준에 도달해서도 많은 오류를 보이는 문법 항목이다. 본 연구는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 ‘은/는’과 ‘이/가’에 대한 인식이 모어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두 조사의 언어맥락적 조건을 나누어 세 집단의 수용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은/는’과 ‘이/가’의 모든 실현 맥락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도 ‘은/는’과 ‘이/가’의 실현 맥락에 대한 인식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근접하지 못한 반면, 일본인 학습자는 ‘충청성’, ‘수정적 초점’, ‘수사의문문’,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은/는’과 ‘이/가’의 습득에 학습자의 모어 변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몇몇 맥락들에서 일본인 학습자들의 인식이 한국어 모어 화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부적절한 조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던 것은 실생활에서 구어 대화에 노출되는 빈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적절한 조사에 대한 수용성이 낮았던 것은 실험을 통해 제시된 상황에서 일본어 대화가 한국어로 제시한 문항과는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언어맥락적 조건별로 ‘은/는’과 ‘이/가’에 대한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을 관찰하여,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이 모어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조사의 실현 맥락을 보다 다양하게 한국어 교재에 포함하고,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사들이 변별적으로 교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 대상을 중국인과 일본인 고급 학습자로만 한정하여 다양한 모어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

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습득 양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본 논문은 2021. 8. 7. 투고되었으며, 2021. 8. 15. 심사가 시작되어 2021. 9. 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석주(2001), 「한국어 조사의 연구 - '가'와 '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석주(2002ㄱ), 「조사 '가'의 의미」, 『국어학』 40, 221-246.
- 고석주(2002ㄴ), 「학습자 말뭉치에서 조사 오류의 특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1), 543-570.
- 김선희(1983), 「조사 '가'의 의미와 주제」, 『연세어문학』 16, 28-41.
- 김원경(199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조사 “은/는”과 “이/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남기춘(2002), 「영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 『한국어 교육』 13, 27-45.
- 김지은(2009), 「조사 ‘이/가’와 ‘은/는’의 대치오류 분석」, 『언어과학연구』 48, 1-40.
- 김현지(2010), 「초급 중국어 한국어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사용의 경향성 연구」, 『언어와 문화』 6(3), 81-99.
- 김호정·강남옥(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Ⅱ)」, 『국어국문학』 156, 5-41.
- 남기심(1972), 「주제어와 주어」, 『어문학』 26, 128-131.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 서울: 태학사.
- 박선희(2016),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의 실현·비실현 습득 연구」, 『언어과학』 23(3), 91-110.
- 박종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새국어교육』 82, 127-144.
-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문제’ 연구」, 『문법연구』 2, 131-170.
- 오아림(2021),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아림·박선희(2016),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연구」, 『언어 사실과 관점』 39, 221-247.
- 원미진(2016), 「조사 ‘이/가’와 ‘은/는’의 중간언어 습득 양상 연구 - 중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어문』 68, 261-281.
- 이은경(199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성·강계남·김양분·강상진·이은실(200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 방법』, 서울: 박영사.
- 임홍빈(1972), 「국어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3-100.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서울: 태학사.
- 정해권(2011), 「한국어 문장의 주제와 초점 구조 습득 -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3), 285-304.
- 채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93-112.
- 최현배(1959), 『깊고 고친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최현배(1999),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한국어학회(1999),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 한승화(2016),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사 ‘은/는’의 사용 양상과 오류 연구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70, 111-151.
-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서울: 역락.
- Lee, H. (2010), "Explaining Variation in Korean Case Ellipsis: Economy Versus Iconicit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9, 291-318.
- Jiang, N., Novokshanova, E., Masuda, K., & Wang, X. (2011), "Morphological Congruency and the Acquisition of L2 Morphemes", *Language Learning* 61(3), 940-967.
- Sholeva, I. K. (2018), 「불가리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Yang, I. S.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은/는’과 ‘이/가’ 인식 연구

오아림

본 연구는 일본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은/는’과 ‘이/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은/는’과 ‘이/가’의 적절성은 언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은/는’이 실현되는 언어적 맥락은 총칭성, 구정보, 대조가 있으며, ‘이/가’의 실현 맥락은 정보적 초점, 선택적 초점, 수정적 초점, 배타성, 특정성, 확인의 문문, 수사의문문, 비한정적 주어에 있다. 일본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각각 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리커트 척도법이 사용되었으며,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수용성 점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은/는’과 ‘이/가’의 모든 실현 맥락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일본인 학습자들은 총칭성, 수정적 초점, 수사의문문, 비한정적 주어 맥락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 언어 사이의 형태론적 유사성(morphological congruency)이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한다.

핵심어 은/는, 이/가, 언어적 맥락, 제2언어 습득, 형태론적 유사성

L2 Korean Perception of eun/neun and i/ka by L1 Japanese and Chinese Learners

Oh Ahrim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acquisition of eun/neun and i/ka by Japanese and Chinese learners. The appropriateness of eun/neun and i/ka depends on linguistic contexts, such as particular sentence components in the sentence and prior utterance. Linguistic contexts in which eun/neun is used are genericity, givenness, and contrast. i/ka occurs in contexts such as informational focus, selecting focus, replacing focus, exclusiveness, specificity, confirmation question, rhetoric question and indefinite subject noun. Altogether, 30 L1 Japanese learners of Korean(-JKs), 30 L1 Chinese learners of Korean(CKs) and 30 native speakers of Korean(NKs) participated in the study. A Likert-scale was used to review participants' perceptions and an ANOVA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CK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Ks in all of the context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JKs and NKs in four contexts: genericity, replacing focus, rhetorical question and indefinite subject noun. This indicates that morphological congruency of native language of the learners and target language is one variabl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KEYWORDS eun/neun, i/ka, linguistic context, L2 Korean acquisition, morphological congruency